

실제 발화 상황에서 프랑스어와 한국어의 음절구조 비교*

A Comparative Study of Syllable Structures between French and Korean in Real Utterances

이 은 영**
Eun-Yung LEE

ABSTRACT

This paper compares the syllable structure of French and Korean analyzing the speech data of these two languages recorded during the actual speech. Reference to the syllable structure of French is made from F. Wioland's research data. As for the Korean data, the primary data are drawn from the 30-minute radio interview in which two male TV anchors in their early 60s talk to each other. The secondary source of the data is collected by having the primary data replicated by the two male announcers in their early 20's broadcasting in the university radio station of KAIST. With reference to the data collected in French and Korean, this paper provides the statistical frequency of each type of syllable structure in each language through the acoustic analysis of the spectrograms and renders a phonetic account of the characteristics of each syllable type in the two languages. Also discussed in this paper is the distributional condition in which each syllable structure is laid out in the speech context.

Keywords: Real Utterances, Syllable Structures, Korean, French

1. 서 론

최근 기술 정보 산업이 발달하면서 특히 구어와 자연 발화 상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지금까지의 음절구조와 음소분포에 대해 연구는 대부분 문어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구어를 실제 발화 상황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분석한 자료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게다가 음절은 항상 음운론적으로 정의되고 경계가 구분되어 왔으며 음절 경계는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따라서 문자가 아닌 실제 발화 상황의 말소리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가능한 주관적 선입견을 배제하고 음성학적 측면에서 객관적 관찰을 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미 음운론에서 이론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프랑스어와 한국어의 음절구조가 구두 담화에서 즉 실제 음성적 음절에서는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관찰하기 위한 것이

* 이 논문은 2000년도 경북대학교의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불어불문학과

다. 두 언어의 실제 음성데이터를 구축,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자연발화에서 실현된 음절구조의 유형과, 유형 별 사용빈도수, 분포적 제약 조건 등을 밝혀냄으로서, 실제 발화 상황에서 프랑스어와 한국어의 음절구조 유형과 두 언어 간 특성을 비교해 보려는 것이다.

프랑스어의 경우에는 1985년 Strasbourg 음성학 연구소에서 F. Wioland 교수가 이미 이론적인 틀에서 벗어나 실제 발화 상황에서 프랑스어 음절구조가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방대한 자료 분석을 통해 치밀하게 관찰하고 여러 관점에서 분류·정리한 저서인 *Les structures syllabiques du français*를 출간한 바 있으나, 한국어에 대해서는 아직 이런 관점의 연구 결과를 보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관련된 선행 연구 자료들 가운데 ‘불어의 음절구조 분석 (이정원, 1997)’과 ‘한국어 음절의 유형 별 분포 (이순향, 2001)’가 있다. 전자는 실제 음성 자료를 분석한 스펙트로그램을 통해 프랑스어 음절구조의 실현 모습을 보여 주는 연구였고, 후자는 음성이 아닌 철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음절구조의 유형에 대한 연구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구두 담화에서 얻은 음성자료를 통해 각 언어의 음절 구조 유형과 빈도수를 도출하고 두 언어간의 특성을 비교한다는 점에서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두 언어간 음절 구조의 차이로 인해 프랑스인이 한국어를 배우거나 한국인이 프랑스어를 배울 때 과생되는 문제들을 보다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구두 담화 분석을 위해서는 좋은 음성 자료체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한 예비작업으로 직접 프랑스 스트라스부르그 음성학 연구소에서 FLE¹⁾를 전공하는 프랑스인 대학생 남녀 2 명의 대화를 녹음하여 분석한 결과, 요즈음 청소년들의 주된 특징 중에 하나인 말 줄이기가 심한데다, 대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음소의 동시조음, 축약, 탈락 등이 예사롭게 행해졌다. 이 자료에 대해 프랑스어 원어민인 Wioland 교수의 직관에 따른 해석과 한국인인 본 연구자의 지각에 따른 해석 간에 차이가 있어서, 많은 토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석 결과가 일치되지 않았다. 게다가 음절경계는 스펙트로그램에서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다. 따라서 프랑스어의 음절 구조 유형은 F. Wioland의 데이터와 연구 결과를 이용하고, 한국어 데이터를 그 같은 방식으로 구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프랑스어 데이터의 총 음소 수와 음절 수는 각각 20만 음소와 86,943 음절인데 텔레비전 방송 중에서 대화만 녹음한 것으로 특별히 schwa 실현이 많은 남불 방언은 제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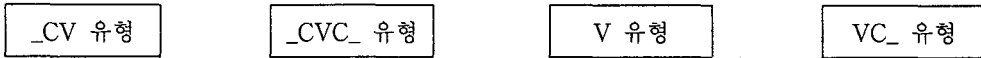
한국어의 경우는 가장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대화자를 찾다보니 진행자와 대담자 양쪽 모두 전직 앵커로 60대 초반의 남자 2 명이 30분 간 대화한 라디오 인터뷰를 녹음하였다. 20 대의 경우도 함께 고려하기 위해 한국과학기술원(KAIST) 방송국 아나운서인 남학생 2명에게 위와 동일한 라디오 인터뷰 내용을 여러 번 읽게 한 다음 빠른 대화 형식으로 말하게 하여 녹음하였다. 한국어 데이터의 총 음소 수와 음절 수는 각각 29,151 음소와 12,703 음절이다.

이렇게 얻어진 음성 자료를 최소 소리 단위로 토막 내어 IPA 부호로 전사하였고, 효과적인 식별 분류 연산처리를 위해 Excel을 사용하였다. 동시조음이나 동화현상에 대한 문제는 음성분석 장치(CSL4300B)를 이용하였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로 실현된 음절구조의 유형을 분류한 후, 유형 별 사용 빈도수와 비율을 계산하고, 두 언어 간의 음절 구조의 차이를 밝혀 보기로 한다.

1)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 교육

2. 프랑스어의 음절구조 실현과 유형

일반 언어학적인 기준에서 보편적으로 제시하는 음절구조 유형은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자료체를 분석한 결과 나타난 프랑스어의 음절 유형을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_CV 유형	:	CV	48347		
		CCV	12088		
		CCCV	880		
		CCCCV	36		
				합 : 61351 (70,56%)	

CVC 유형	:	CVC	11777		
		CCVC	2301		
		CVCC	1303		
		CCVCC	253		
		CCCVC	155		
		CVCCC	42		
		CCCVCC	6		
		CCCCVC	2		
				합 : 15839 (18,23%)	

V 유형	:	V	8519		합 : 8519 (9,80%)
------	---	---	------	--	------------------

VC_ 유형	:	VC	1151		
		VCC	73		
		VCCC	1		합 : 1225 (1,41%)

이들 중 가장 빈도수가 높은 네 가지 기본 음절 유형은 대부분의 언어에서 CV, CVC, V, VC로 나타난다.²⁾ 그러나 프랑스어에서는 VC 유형보다 CCV 유형의 빈도수가 훨씬 높게 나

2) Clements & Keyser (1983: 27-40)

타났다. 음절의 마지막 음이 모음인가 자음인가에 따라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열린 음절과 닫힌 음절로 분류해 보자면 위의 사실만 보더라도 프랑스어에서는 열린음절의 출현이 더 빈번함을 알 수 있다. 가능한 모든 음절 구조들을 출현 빈도수에 따라 순서대로 정리하고, 열린 음절과 닫힌 음절의 빈도수를 조사해 보았다(표1, 표2).

표 1. 프랑스어의 음절 구조 유형과 출현 빈도수 및 비율

음절유형	빈도수	백분율(%)	누진율(%)
CV	48347	55,61	55,61
CCV	12088	13,90	69,51
CVC	11777	13,55	83,06
V	8519	9,80	92,86
CCVC	2301	2,65	95,51
CVCC	1303	1,50	97,01
VC	1151	1,32	98,33
CCCV	880	1,01	99,34
CCVCC	253	0,29	99,63
CCCVC	155	0,18	99,81
VCC	73	0,085	99,895
CVCCC	42	0,05	99,945
CCCCV	36	0,042	99,987
CCCVC	6	0,01	99,997
CCCCVC	2	0,002	99,999
VCCC	1	0,001	100
총음절수	86943	100	

표 2. 프랑스어에서 열린 음절과 닫힌 음절의 빈도수 및 비율

	빈도수	백분율(%)
열린음절수	69870	80,36
닫힌음절수	17064	19,64

표 1과 표 2를 각각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아래와 같다(그림 1, 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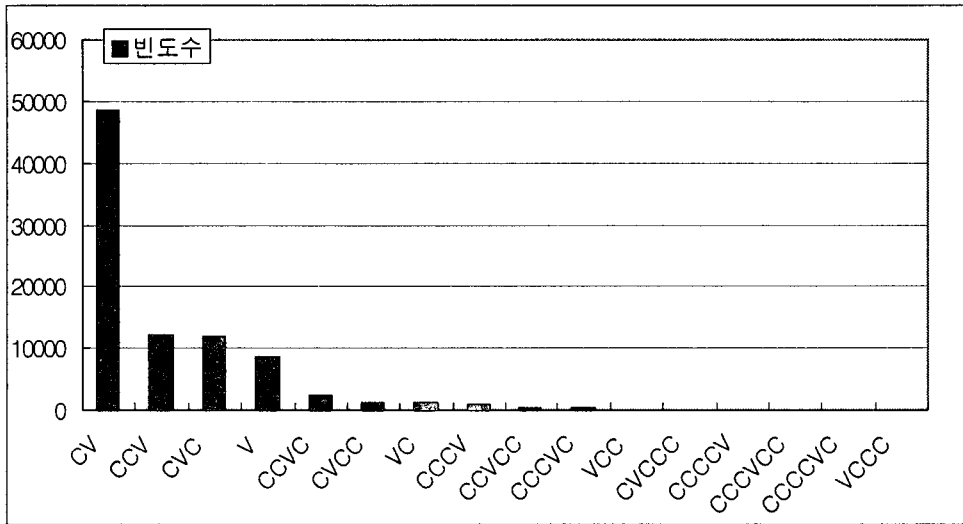


그림 1. 프랑스어의 음절 구조 유형에 따른 출현 빈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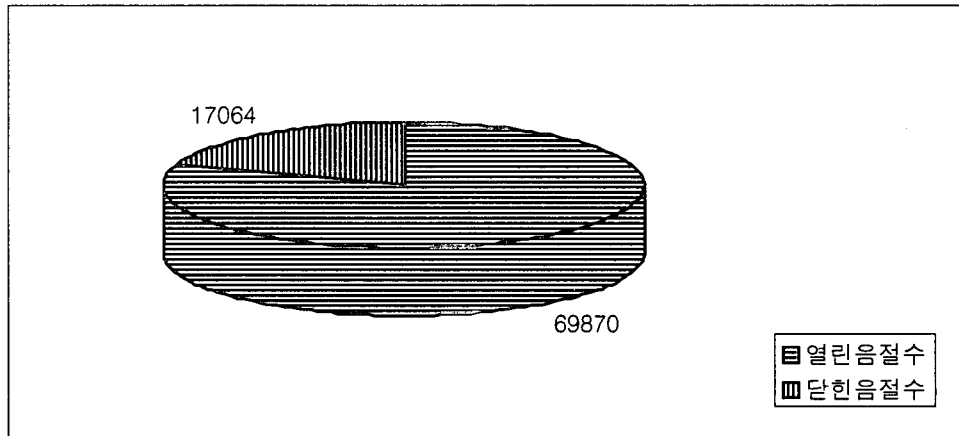


그림 2. 프랑스어에서 열린 음절과 닫힌 음절의 빈도수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CV(55.61%) 구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CCV(13.90%) 구조가 그 다음으로 높은 빈도수를 보였다. 그 다음 순서인 CVC(13.55%) 구조와, V(9.80%) 구조까지 합하면 전체의 92.86%를 차지한다. 앞서 말했듯이 프랑스어에서 다른 언어와는 달리 VC(1.32%) 구조는 발생 빈도순으로 보면 7번째로 상당히 드물게 나타났다. 표 2를 보면 전체 86,943 음절 가운데 열린음절은 69,870 음절로 80.36%인데 반해, 닫힌음절은 17,064 음절로 전체의 1/4에 못 미치는 19.64%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액센트가 놓이는 자리인 리듬단위의 마지막 음절만을 관찰해보면 열린음절 49.5%와 닫힌음절 50.05%로 빈도수가 거의 동등하게 나타난다고 한다.³⁾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프랑스어에서는 모음 앞에 오는 앞음절의 말

3) Wioland (1999: 55-57)

음이 뒤따르는 음절의 두음으로 재음절화되는 현상이 일반적이며, 리듬단위 내에서는 문법경계나 단어경계 간에도 모음 앞 자음이 뒷 음절로 두음화된다(ex: [sct a ne]→[se ta ne]). 이러한 재음절화가 더해져서 프랑스어 음절의 3/4 이상이 열린 음절로 실현된 것이다.

3. 한국어의 음절구조 실현과 유형

한국어의 음절유형은 이론적으로 CV 유형, CVC 유형, V 유형, VC 유형 네 구조만 가능하다고 한다. 한국어 음절형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음절 초나 음절 말 위치에 자음군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15세기의 중세 한국어 시대에는 단어의 첫 머리에서는 자음이 최대 세 개까지 허용되었으나(때(時), 꿀(蜜)) 이후 단음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그 시대 음가에 대한 기록이 없어서 철자와 음가의 관계는 확인할 수가 없다. 형태소나 단어의 끝자음에는 ‘ㄱ, ㄴ, ㄹ, ㄷ, ㄱ, ㄷ, ㅂ’ 등 11 종류가 올 수 있으나, 음절 말 위치에 오게 되면 음절 말 자음군을 허용하지 않는 원칙에 따라 어느 하나의 자음만으로 실현된다. 따라서 여러 음절이 결합된 경우 음절 경계에서의 자음군은 이론 상 최대 두 개만 가능하다. 차용어에서 두 개 이상의 자음연쇄를 막기 위해서 ‘으’ 삽입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음절구조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현상인 것이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의 발음은 과거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외국어 특히 영어 조기교육의 영향으로 조음능력이 발달되고, 조음기관이 더욱 유연하게 되었다. 따라서 실제 발화 상황에서 음절구조의 실현 상태를 관찰해 보았다.

음운론적 관점에서 한국어의 이중모음 /ㅈ, ㅋ, ㆁ, ㅍ, ㅊ, ㅌ, ㄷ, ㄱ, ㄴ, ㄹ, ㄷ, ㄱ, ㄷ, ㅂ/는 각각 개별 음소로 분류하고 있으나, 음성학적 관점에서는 /반자음+모음/ 또는 /모음+반자음/으로 간주한다. 음성학자는 반자음(Semi-consonne)도 자음으로 간주하므로 프랑스어 음절 구조 분류에서는 반자음도 자음으로 표시하였다. 예를 들어 프랑스어 CCV 구조의 두 번째 C는 자음 또는 반자음을 나타낸다. 하지만 한국어의 경우는 두 번째 C가 반자음 만을 나타내므로 일단은 CCV 대신 CSV로 표시하기로 하자. 따라서 음성학적으로는 CV, CVC, V, VC 구조에 CSV, CSVC, SV, SVC, VS, CVS 구조가 추가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체의 분석 결과 한국어의 음절 유형을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_CV 유형	:	CV	6936	
		CSV	502	
		SV	490	
				합 : 7926 (62,40%)

CVC 유형	:	CVC	3340	
		CSV	317	
		SVC	123	
		CVS	39	
				합 : 3819 (30,06%)

V 유형 : V 720 합 : 720 (5,67%)

VC_ 유형 : VC 192
VS 46 합 : 238 (1,87%)

녹음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상기 분류 내용을 프랑스어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가능한 모든 음절 구조들을 출현 빈도수에 따라 순서대로 정리하고, 열린 음절과 닫힌 음절의 빈도수를 조사해 보았다(표3, 표4).

표 3. 한국어의 음절 구조 유형과 출현 빈도수 및 비율

음절유형	빈도수	백분율(%)	누진율(%)
CV	6934	54,59	54,59
CVC	3340	26,29	80,88
V	720	5,67	86,55
CSV	502	3,95	90,50
SV	490	3,86	94,36
CSV	317	2,50	96,86
VC	192	1,51	98,37
SVC	123	0,96	99,33
VS	46	0,36	99,69
CVS	39	0,31	100
총음절수	12703	100	

표 4. 한국어에서 열린 음절과 닫힌 음절의 빈도수 및 비율

	빈도수	백분율(%)
열린음절수	8646	68,06
닫힌음절수	4057	31,94

표 3과 표 4를 각각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아래와 같다(그림 3, 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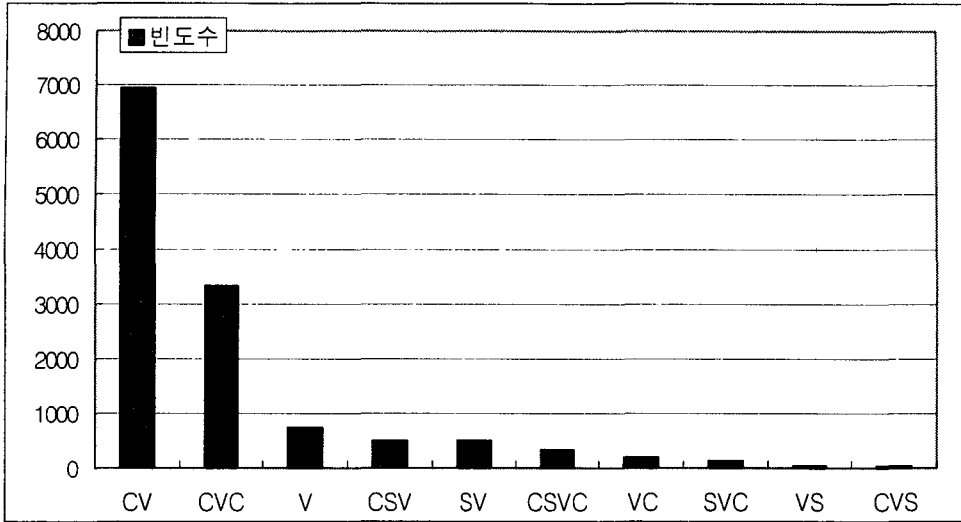


그림 3. 한국어의 음절 구조 유형에 따른 출현 빈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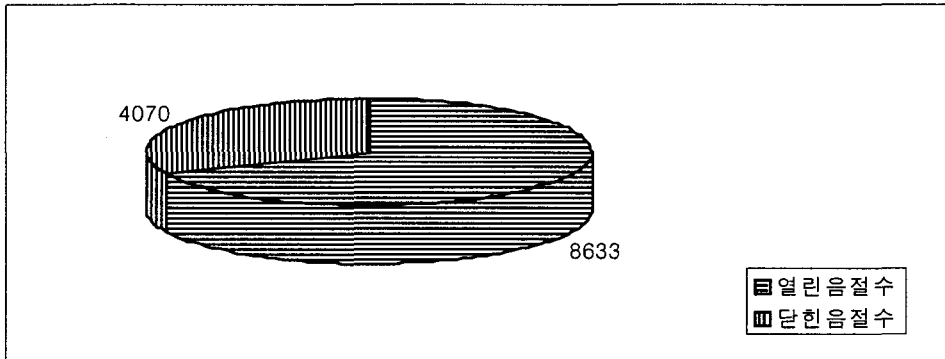


그림 4. 한국어에서 열린 음절과 닫힌 음절의 빈도수

표 3에서 보듯이 한국어의 경우에 CV(54.95%) 구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그 다음은 CVC(26.29%) 구조로, 이 두 유형만 해도 81.24%를 차지한다. 그 다음은 빈도수가 많이 떨어져 V(5.67%)와 CSV(3.95%)를 합해서 90.50%로 나타났다. 프랑스어와 마찬가지로 VC(1.51%) 구조는 발생 빈도순으로 봐서 7번째에 해당되었다. 표 4를 보면 전체 12,703 음절 가운데 열린음절은 8,633 음절, 68.06%인데 반해, 닫힌음절은 4,070 음절, 31.94%로 나타났다, 이를 도식화한 그림 4를 보면 열린음절이 전체의 2/3를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의 경우는 프랑스어의 경우처럼 '리듬단위의 마지막 음절에 액센트가 놓이는 자리'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으므로, 리듬단위가 아닌 음절 단위 실현 시의 음절 구조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열린음절은 54.55%인데 반해 닫힌음절은 45.45%로, 열린음절은 줄어들고 닫힌음절은 증가하였다.4) 한편 철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음절의 유형 별 분포'5)에서는 열린음절이 16.56%이고

4) Lee & Wioland (2002: 151)

닫힌음절이 83,6%로 닫힌음절의 빈도수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어의 경우 철자와 발음 간의 불일치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고, 관찰의 관점이 음운론적인가 음성적인가에 따라 역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모음 앞에 오는 앞음절의 발음이 뒤따르는 음절의 두음으로 재음절화되는 현상이 일반적이다. 또한 한국어의 두음이나 발음 자리에서는 반자음을 제외하고는 자음 연쇄가 허용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4. 프랑스어와 한국어의 음절 구조 유형 및 특성 비교

프랑스어와 한국어 양쪽 모두 구어체에서는 열린음절로 실현되는 빈도가 훨씬 높았으며 프랑스어가 한국어 보다 더 높은 실현율을 나타내었다(그림 5). 두 언어 간 음절 유형 별 출현 빈도를 비교하기에는 서로 다른 음절 유형이 많아서 방법 상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두 언어에 공통된 유형과 각 언어 별 해당 유형을 모두 나열하고 공통('공') 또는 해당 언어('프' 또는 '한')를 표시하여 하나의 그래프로 나타내 보았다(그림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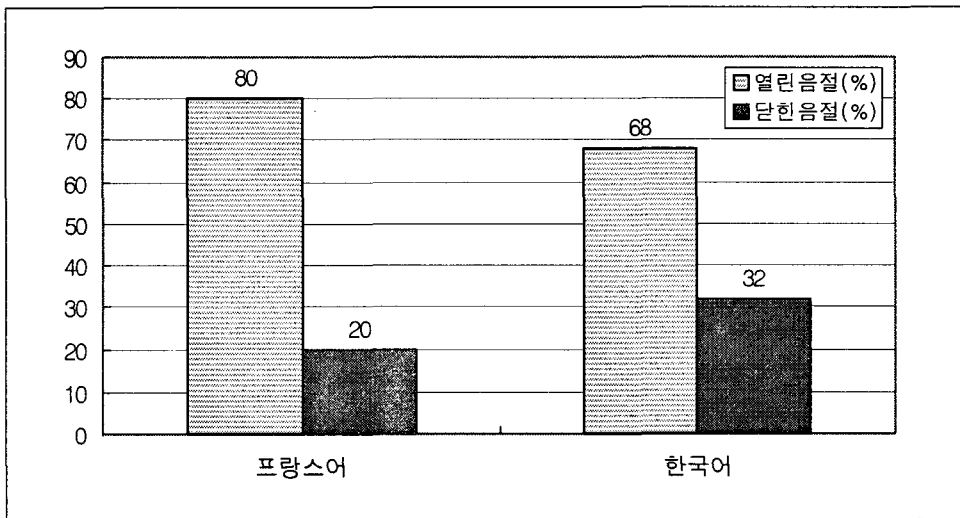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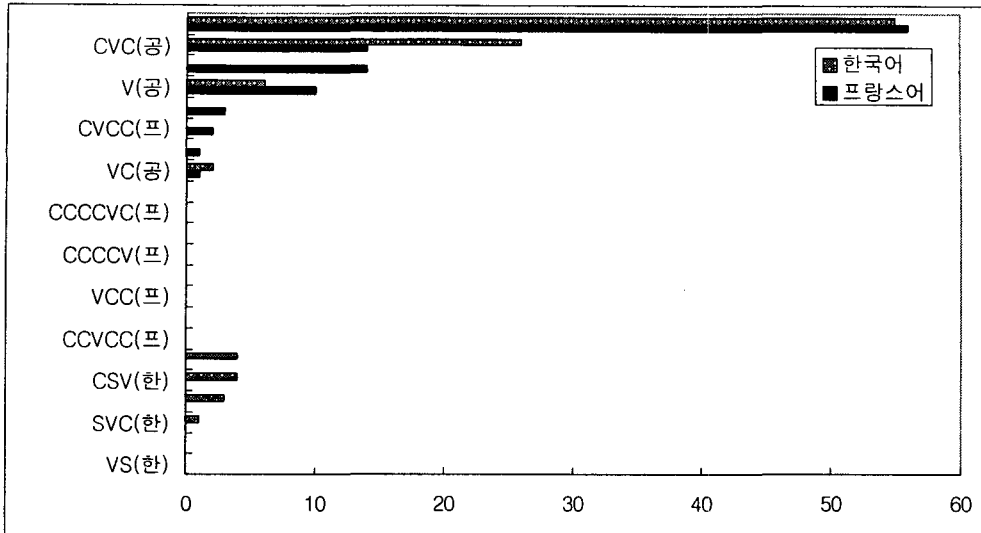


그림 5. 프랑스어와 한국어에서 열린음절과 닫힌음절의 비율 비교



(한): 한국어에만 있는 음절 구조

(프): 프랑스어에만 있는 음절 구조

(공): 두 언어에 공통인 음절 구조

그림 6. 프랑스어와 한국어의 음절 구조 유형에 따른 출현 빈도 비율 비교

그림 5에서 보듯이 프랑스어의 음절은 80%가 열려있는 반면에 한국어의 열린음절은 68%로 프랑스어에 비해 좀 더 닫히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아래 그림 6을 보면 한국어는 두음 말음 자리에 한 개의 자음 또는 <자음+반자음> 만을 허용하는데 반해 프랑스어의 경우 두음 자리에서는 반자음을 포함하여 최대 4 개 자음까지, 말음 자리에서는 최대 3 개 자음까지도 허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모음 간 자음의 허용 가능 범위는 프랑스어가 훨씬 크다.

한 언어의 음절 구조에 대한 연구는 음운 기술의 수월성을 위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한편 두 언어 간의 음절 구조 차이는 모국어 간섭으로 인해 상대 언어의 음절 실현을 왜곡시키고 음절수를 늘이거나 줄임으로써 운율 실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음절구조에 대한 비교 연구는 언어 구조 자체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외국어 교육을 위해서도 필요할 것이다. 음절수는 마치 음악 악보에서 한 마디 안에 들어가는 음표 수처럼 운율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런데 음절수가 다르게 실현된다면 리듬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는 곧 듣는 사람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의사소통을 다소간 힘들게 할 수가 있다.

프랑스어에서는 schwa의 실현여부가 음절수를 불안정하게 하는 주된 요인이다. 더욱이 프랑스인들은 자연스런 발화상황에서 언어 경제원칙에 따라 리듬단위 내의 음절수를 가능한 한 줄이려고 하므로, 의미전달이 보장되고 조음기관이 허락하는 한 schwa를 탈락시키려고 한다 (au revoir [o rə vwa:R]→[oR vwa:R]). 게다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자음군 발음이 빈번한 프랑스어에서는 두음 자리에서 최대 4 자음까지 말음 자리에서 최대 3 자음까지 실현이 가능한 반면 한국어에서는 한 자음 또는 <자음+반자음>만 오기 때문에, 프랑스인이 한국어를 말할 경우에는 schwa 탈락 현상이 일어나면서 음절수가 줄어들 것이고, 반대로 한국인이 프랑스어

를 말할 때는 schwa 삽입 현상이 빈번하여 음절수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프랑스인이 한국어를 말할 때와 한국인이 한국어를 말할 때 모음을 탈락시켜 음절수를 줄이는 현상⁶⁾ 간에도 각각 자신의 모국어의 음절구조가 적용되므로 그 허용 범위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 분명하다. 합성을 처리에서도 이런 현상을 고려한다면 언어 외적인 정보 전달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 결 론

일반적으로 CV는 모든 언어에서 음절 구성의 기본 유형이며, 대부분의 언어에서 출현빈도가 높은 음절 구조로 CV, V, CVC, VC, 네 가지를 든다. 이는 CV 기본 유형에 두음탈락과 말음삽입이라는 두 가지 규칙이 작용해서 V, CVC, VC 유형이 생겨난 것으로 본다. 이와는 달리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를 정리해 보면 프랑스어에서는 CV, CCV, CVC, V 구조(누진율 92,86%), 한국어에서는 CV, CVC, V, CSV 구조(누진율 90,50%)가 출현 빈도에서 상위 4위를 나타내었다. 열린음절의 실현율은 프랑스어는 80%인데, 한국어는 68%로 프랑스어에서 모음으로 끝나는 음절 유형이 더 많이 실현되는 특성을 보였다. 그러나 프랑스어는 두음 자리에 최대 4 개까지 말음 자리에 최대 3 개까지 반자음을 포함한 자음군을 허용하고 있고 한국어는 두음 말음 양 쪽 모두 단일 자음 또는 <단일 자음+반자음>, <반자음+단일 자음>만 허용하고 있다. 모음 간 자음의 허용 가능 범위는 프랑스어가 훨씬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열린음절이 빈번하면서 모음 간 자음을 많이 허용하는 프랑스어와 모음 간 자음의 수에 제한을 두고 닫힌음절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실현하는 한국어 간에 어떤 발성 특성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는지를 관찰해 보는 것도 흥미 있는 일인 것 같다.

본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에 자료 분석에서 부딪히는 복잡한 문제들이 없지 않았으나 음운론적 선입견을 배제하고 소리에 대한 객관적 기술이라는 관점에서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적용하려 하였다. 그 과정에서 Wioland 교수와의 토론이 많은 도움을 주었다. 소리를 인식하는 관점에서 국어학자와의 시각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논의는 계속해 나갈 것이다.

실제 발화상황에서의 두 언어의 음절구조 실현에 대한 객관적 연구는 음운기술에 있어서도 보다 자연스런 음운원리 도출에 도움이 될 것이며, 해당 언어의 음성인식·합성에도 필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두 언어의 음절 구조를 비교함으로써 프랑스어를 배우려는 한국인들과 한국어를 배우려는 프랑스인들에게 발음의 중요한 핵심을 쉽게 이해시킬 수 있을 것이고, 분절음 중심의 발음교육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음절 유형별 분포와 음절 개폐에 관한 본 연구가 이러한 분야에서 좋은 자료로 쓰이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 신지영. 2003. *우리말 소리의 체계*. 서울: 한국문화사.
- 이순향 외. 2001. “한국어 음절의 유형별 분포.” *제10회 한국음성과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39-145.
- 이은영 외. 1999. “CSL을 이용한 한국인의 프랑스어 운율 학습방안.” *음성과학*, 6, 83-101.
- 이정원. 1997. “불어의 음절구조 분석.” *음성과학*, 1, 113-135.
- Angoujard, J.-P. 1997. *Théorie de la syllabe: Rythme et qualité*, CNRS éditions.
- Clements, G. N. & S. J. Keyser. 1983. *CV Phonology*. The MIT Press.
- Lee, E.-Y. 1993. *La réduction vocalique en coréen (Analyse spectrographique)*, Mémoire de D. E. A., Institut de phonétique, Université des Sciences humaines de Strasbourg.
- Lee, E.-Y. & F. Wioland. 2002. *Les structures syllabiques et la distribution des phoèmes en coréen parlé*, Travaux de l'Institut de Phonétique de Strasbourg, 32, 149-168
- Lee, J.-W. 1993. *La Structure Syllabique et les Consonnes du Coréen*. Hanshin Publishing Co. Séoul.
- Léon, P. 1992. *Phonétisme et prononciation du français*. Nathan. Paris.
- Leon, P. & M. Leon. 1997. *La prononciation du français*, Nathan Université.
- Wioland, F. 1985. *Les structure syllabiques du français*, Slatkine-Champion, Genève-Paris.
- Wioland, F. 1991. *Prononcer les mots du français*, HACHETTE F.L.E.

접수일자: 2003. 4. 30.

게재결정: 2003. 6. 10.

▲ 이은영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370번지 (우: 702-701)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불어불문학과

Tel: +82-53-950-5165 (O) Fax: +82-53-950-6159 (O)

E-mail: eylee@knu.ac.kr